존경하는 당회장 조목사님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목사님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벌써 2020년도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10월 말쯤 DASHAIN(더샤인), 11월 중순쯤 TIHAR(티하르)라고 하는 한국의 추석 같은 명절이 있어
친척들과 시간을 보내며 바쁘게 지내었습니다.
작년 명절에는 한국에서 선교사대회에 참석하느라 저는 네팔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이었습니다.
네팔의 명절은 힌두교식 의미가 강하기에, 한국에서 제사를 지내듯 네팔에서도 제사 의식 같은 것을 하는데
저희는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일가친척들을 만나 틈틈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DASHAIN(더샤인) 기념 사진>


<TIHAR(티하르) 기념 사진>

TIHAR 명절 기간 중 "빗댜"라는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빅럼목사님의 누나와 같은 집에 월세를 사는 자매인데,
남편과 이혼하고 술을 많이 마셔서 장기들도 많이 손상되어 있으며, 술을 끊으면 금단 증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포기하여 명절에 홀로 지내고 있어 저희 집에 초청하였는데, 밤에 잠을 사는 동안 갑자기 저희에게
기도해 달라며 왔습니다.
귀신이 귀에 계속 소리를 내며 장난친다고 하여 저희가 새벽에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명절 당일이었던 다음 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여 같이 영접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수님만을 믿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빗댜자매가 속히 술을 끊고 성령세례 받을 수 있도록, 몸 속에 돌이 생겨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받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빗댜 자매 영접 기도 중>

TIHAR 명절 연휴 중,
간드룩에서 외가 쪽 사촌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셋째 이모의 둘째 아들(어닐)이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포카라 산 쪽 마을에 사는데, 사촌 동생들이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날 처음 사촌 동생을 보고 같이 점심을 먹은 후 사촌 동생이 다음날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하여 저녁에 출발하였는데, 가는 길에 사고가 나 오토바이와 함께 강변에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촌 동생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 제발 살려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며 급하게 외국인선교회 성도님들께 기도를 요청 드린 후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보니, 사촌 동생 어닐은 많이 다쳐 있었고 함께 갔던 친구가 죽어있었습니다.
네팔은 헬멧이 운전자는 법적으로 의무지만, 뒤에 타는 사람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는 머리에 돌을 맞아 피를 많이 흘려 죽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죽은 친구에 귀에도, 사촌 동생 어닐에게도 급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사촌 동생은 정말 은혜로 큰 고비를 넘기고 몸을 잘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퇴원하였습니다.
아직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가끔 엉뚱한 말을 하는 등 이상 증세가 있는데,
앞으로 집에서 쉬면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원 심방 중, 중환자실에서>

저희가 또 기도 했던 부분이 죽은 친구의 가족들이 사촌 동생을 신고하여 합의하지 못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시도록 기도하였는데,
죽은 친구의 부모님께서 선처하여 신고를 취소해 주셨고 아무 문제 없이 사고가 수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친구 부모님께 저희가 꼭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일가친척들이 이것을 계기로 더욱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일라다이는 여전히 집에서 잘 챙겨주지 않아 밥을 많이 굶고 있습니다.
저희가 틈틈이 보고 있고,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해주셔서 마일라다이가 더욱 믿음으로 서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저희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최근 저희에게 새로운 스쿠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스쿠터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일에 대해 친척들에게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위해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며 스쿠터로 어디를 가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또 항상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차를 허락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팔 은혜와진리교회 성전>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건축은 완공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물이 새었던 천장의 보수 수리를 끝내고 대청소를 하였고,
이제 내부에 남은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통행금지 기간에 동네 아이들이 침례장에 돌을 던져 깨진 타일이 있는데,
타일을 보수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네팔에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크리스마스 예배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여러 사람을 초청하여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풍성히 채워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세워진 교회를 통해 네팔 전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끝까지 정결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어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12월이 지나면 1월 초에 다시 비자 연장을 위해 카트만두에 가려고 합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 중입니다. 모든 비자 연장 과정이 순적 하게 이루어지도록, 오고 가는 길 안전하도록,
필요한 모든 경비가 넘치게 채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2020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에는 가까이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며, 다음에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1. 저희의 성령 충만함과 건강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주와 복음을 위해 더욱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2. 빗댜자매가 성령세례 받고 승리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종종 귀에 귀신의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물리칠 수 있도록,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사촌동생(어닐)이 건강을 잘 회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몸을 잘 회복하여 후유증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마일라 다이가 항상 성령충만 받고 건강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 크리스마스 예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하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세례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6. 저의 비자 연장이 순적하게 이루어 지도록, 오고가는 일이 안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0.12.02

네팔 치트완에서, 데우자 빅럼, 심진숙 올림-